

한국불교가사의 유형별 특성과 유기적 관계 탐구



한국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
전재강 지음
보고사 펴냄
2만3천원

“사람들은 석가라 말하고 또 실달타라 말하네 / 말고 말라 꿈 말하지 말라 / 그는 눈 속의 꽃이 아니네. / 높고 높고 우뚝우뚝 붉기가 씻은 듯하고 / 오 밀조밀 흰하게 깨끗하기는 벗은 몸 같네 / 봄바람은 난만하고 물은 유유한데 / 홀로 건곤에 걸으니 누가 나와 짝하라”

〈한국 불교 가사의 구조적 성격〉에 이은 한국 불교가사에 대한 연구서다. 전작이 내용 가사, 침경 가사, 지형 불교 가사, 경허 가사, 백용성 불교 가사 등 주로 불교 가사 작가의 개별 작품을 분석하고 해석한 연구서였다면, 〈한국불교가사의 유형적 존재 양상〉은 불교가사 전체에서 어떤 작품이 어떤 국면에서 창작, 향유되어 왔으며 작품의 문에 미학적 성격은 어떠한지를 구명하기 위해 불교가사 전체문학 현상을 유형적으로 나누어서 논의를 진행했다.

불교가사는 부처님의 무량공덕을 기리고 불교의 사상과 불법의 요한 이치를 사부대중에게 알리고 신앙심을 북돋우려는 목적에서 지어진 4음보 율문 형식의 시가를 말한다. 조선 전기에 지어진 100행 내외의 것을 가사(歌詞)라 하고, 조선 후기에 지어진 장편을 가사(歌辭)라 하여 그 둘을 구별하기도 하나, 보편적으로 가사(歌辭)라 한다.

불교가사는 크게 네 가지 유형이 있다. 첫째는 기존의 한문 발원문을 한글 가사체로 변화시킨 번역 계열(백전낙거사의 ‘염불가’, 의상화상의 ‘일승발원가’ 등), 둘째는 한글 가사체로 창작된 창작계열(나옹화상의 ‘서왕가’, 침경화상의 ‘귀산곡’ 등), 셋째는 첫째와 둘째를 혼용한 중창작계열(삼연선생 ‘염불가’, 이광수 ‘원효대사법회송’ 등), 넷째는 공동작인 구비전승계열(권수근 구술 ‘별별회심곡’, 이경협 구술 ‘반회심곡’ 등)이 있다.

책에서는 불교의 이념과 승가 사회의 국면 등을 고루 감안하여 대략 아홉 가지의 유형을 설정하고 논의를 진행했다. 몽환가류, 회심곡류, 발원가류, 염불가류, 왕생가류, 토굴가류, 참선가류, 경전가류, 찬불가류 등이다.

책의 서두와 결론 부분에서는 가사의 시조 발생과 최종 행방을 찾아보는 논의를 진행했고, 본문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불교가사 유형을 나누어서 유형별 특성과 상호 유기적 관계 맥락을 탐구했다.

불교가사는 승가 사회에서 행해지는 여러 가지 일과나 의식 등의 필요에 따라 구체적 국면마다 창작되고 향유되는 특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래서 불교가사는 승가 사회의 국면별 구체적 요구에 따라 각기 다른 성격의 작품 유형이 창작되고 향유되면서 비교적 동질적 작품으로 포괄할 수 있는 유형이

나타나고 각 유형은 유형적 특성을 가지면서도 다른 유형과 일정한 관계를 맺으며 향유되어 왔다.

불교가사에 대한 유형적 접근은 한국 문학사에서 불교가사가 가사로서 왜 처음 등장했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불교가사가 창작되고 향유되었는지? 그래서 불교가사는 어떤 성격을 획득하게 되었는지? 유형적 연구로 인해 고려 말에 불교가사가 발생하게 된 문학적 배경이 논의됐고, 특징적 승가 사회의 각 국면별로 행해진 의식, 행사, 과업 등과 관련하여 불교가사 작품 유형을 유기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마침내 근현대에 이르러 불교가사의 최종 행방을 추적할 수 있고, 어떤 유형의 작품이 어떤 이유에서 근현대까지 유통되거나 새롭게 창작되고 있는지를 논의할 수 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런 유형적 접근을 통하여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책은 3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 ‘한국 불교가사의 태동’에서는 고려 말 충지, 태고, 백운 나옹 등 선사들의 한문 가송찬류 30여 수를 대상으로 율격과 갈래 성격을 살폈다.

제2부 ‘한국 불교가사의 전개’에서는 일반 대중을 교화하는 한편 영혼을 천도하는 기능을 수행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염불가류, 참선곡류, 왕생가류

불교가사 전체 문학현상 연구

9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논의를

출현과 마지막 행방 밝힐 근거 제공

등 다른 유형의 내용을 일부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주며, 작가 의식에서 일체가 본래성분해 있다는 일원적 세계관에 기초하면서도 교시의 방편상 무명과 진상이라는 이원대립적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음을 구명했다. 또한 몽환가류의 개방성과 작가 의식과 회심곡류의 전개 구성과 선악 생각관, 발원가류의 존재 위상과 성격, 염불가류의 성격, 왕생가류의 표현 방식과 세계 인식, 토굴가류의 갈래 성격과 이념, 참선곡류의 구조, 경전가류의 소의경전과 성격, 찬불가류의 지향적 주제와 다층적 갈래 성격 등을 다루고 있다.

제3부 ‘한국 불교가사의 귀결’에서는 신체불교가사에 나타난 현실인식과 현실 대응 방향과 경상북도 지역 민간전승 불교가사 유형과 작품의 성격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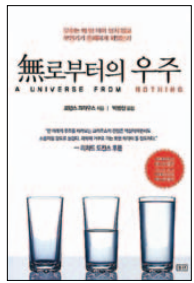
책은 불교가사가 처음 발생하게 된 배경을 시작으로 다양한 불교가사 유형들이 상호 유기적 관계를 맺으며 공존하다가 근세에 이르러 보인 최근의 모습을 한 세기 전의 신체 불교가사를 통하여 살펴보고, 경상북도 지역 민간전승의 불교가사의 역사적 전개와 유형적 존재 양상을 짚고 날줄로 하여 불교가사 전반을 구조적으로 조망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wanhollo@hyunbul.com

우주는 왜 비어있지 않은가?...과학으로 답하다

무로부터의 우주

로렌스 크라우스 지음 | 박병철 옮김 | 송산 펴냄 | 1만6천원



우주는 왜 텅 비어 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아무것도 없는 ‘무(無)의 우주’가 될 수도 있었을 텐데, 왜 지금과 같이 다양한 천체들이 존재하게 되었는가? 아마도 이것은 지난 2천여 년 동안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질문이자, 인간이 자연을 대상으로 떠올린 최초의 질문이었을 것이다. 책은 ‘우주는 왜 비어 있지 않고 물질의 존재를 허용하는가?’라는 질문에 과학이 어떤 답을 제시할 수 있으며, 지금 어떤 답을 준비하고 있는지 알아본다.

우리가 말하는 ‘우주’에는 수많은 별과 은하가 있고, 지구에는 인간을 비롯한 오만가지 생명체가 존재한다. 외계행성에 다른 생명체가 또 있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누군가가 “우리의 우주는 아무런 목적도, 의도도 없이 자연발생적으로 태어났다”고 주장할 때마다 “그럼 왜 우주에는 무언가가 존재하게 되었는가? 애초부터 목적이 없었다면 굳이 물질이 존재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라는 반문이 제기되곤 했다. 사람들은 이것을 흔히 철학적, 또는 종교적인 질문으로 간주해왔으나, 어쨌거나 자연을 대상으로 떠올린 최초의 질문이었으며, 과학의 범주 안에서 답을 구할 수 있는 질문이기도 했다.

그가 책을 집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로 작

용한 것은 현대과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기이한 형태의 어떤 ‘에너지’ 때문이었다. 그 말하는 것은 1cm의 빈 공간마다, 십억 개의 원자탄과 맞먹는 에너지가 담겨 있는데, 그것이 그가 말하는 기이한 형태의 에너지를 말한다. 공간은 비어 있지 않고 꽉 차 있다는 것이다.

이 기이한 ‘에너지’는 크라우스의 연구 방향을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현대우주론을 완전히 다른 위상으로 접어들게 했다. 또한 ‘숨은 변수 이론’으로 유명한 물리학자이자 다양한 학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철학적 사색가로 널리 알려진 데이비드 봄이나 <홀로그래픽 우주>의 저자 마이클 말보트 역시 이 에너지의 존재에 대해 동의하고 있다.

지금으로부터 100여 년 전에 아인슈타인은 현대 우주론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는 ‘일반상대성이론’을 완성했다. 그리고 빅뱅(Big bang)을 처음 제안했던 르메트르를 조종했고, 자신의 이론으로 정적인 우주를 구현하기 위해 우주상수까지 도입했다. 하지만 그로부터 100년이 흐른 지금, 과학자들은 우주가 팽창한다는 사실을 알아냈고, 빅뱅이 남긴 빛의 잔해이자 빅뱅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입증하는 마이크로 우주배경복사를 발견했다.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존재한다는 사실도 알려졌다. 다시 말해서, 100년 사이에 양자역학 등 미시세계의 물리학이 알려지면서 텅 빈 공간의 특성이 과거의 짐과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된다. 특히, 우주론과 입자물리학, 그리고 중력 이론은 지난 20여 년 사이에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으며, 우리는 우주의 기원과 미래에 대하여 놀라움과 심오한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주의 미래는

어떤 식으로 펼쳐질 것인가? 요란한 폭발로 끝날 것인가? 아니면 안으로 수축되면서 조용히 끝날 것인가? 또 우주는 왜 텅 비어있지 않고 무언가가 존재하는가?

책은 ‘우주는 어떻게 무에서 태어났는가?’라는 심오한 질문에 명쾌한 논리로 과학적 답을 제시한다.

시간, 공간, 물질, 에너지가 없는 상태로 정의되는 ‘무’에서 무언가가 탄생했다는 이야기는 에너지보존법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수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로렌스 크라우스의 입장은 확고하다. 그는 “과학은 우주의 기원을 실험과 이론에 입각하여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이 점을 독자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을 목적으로 책을 썼다.”고 밝힌 목적을 말한다.

크라우스는 “우주가 무(無)에서 자연스럽게, 그리고 필연적으로 탄생했다는 주장은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가 이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모든 사실들과 점점 더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며, “우리에게 이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해 준 것은 경험에 기반을 둔 우주론과 입자물리학이었다”고 말한다. 이어서 그는 “최후의 퍼즐모양이 어떤 모양이건 간에, 지난 40년 동안 물리학과 천문학이 일궈낸 수많은 발견들 덕분에 우주를 바라보는 우리의 관점이 크게 달라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 사이에 질문 자체도 바뀌었지만, 과거에 던졌던 질문도 의미가 많이 달라졌다. 이것은 현대과학이 남긴 위대한 유산이며, 위대한 음악과 위대한 문학, 그리고 위대한 예술처럼 누구나 향유하고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

박재완 기자

시대에 반영하면 유익할 정조의 철학과 사상

지금은, 정조를 읽어야 할 시간

김해영 · 최병용 지음 | 안티쿠스 펴냄 | 1만5천원



‘개혁신구’로 평가받고 있는 조선의 22대 왕 정조의 또 다른 시대적 해석서다. 정조의 문집인 <홍재전서>에 실려 있는 <일득록(日得錄)> 가운데서 난해한 부분을 피하고, 시대에 반영하면 유익할 만한 정조의 철학과 사상을 선별하여 실었다.

조선문화의 전성기라 불리는 진경시대에서 정조는 당대의 수준 높은 문화를 이어가지 못하고 급속히 무너져 가는 것에 대해 안타깝게 여기며 이를 바로 세우려 했다. 정조가 세상을 떠난 지 210년이 지난 오늘날 외래문화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것에 대한 기준도 상실지경에 있다. 그런 점에서 정조의 삶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적지 않으며, 그로 인해 18세기 정조의 애민외교와 통치철학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특히 1997년 수원의 화성이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이후, 우리 사회

전반에서 정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이른바 인문학계는 물론이고 사회과학계에서도 광범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정조는 유학을 공부한 통치자다. 유학의 종지는 수기치인(修己治人)이다. 정조는 유년기에서 연교육(筵筵教育)과 왕위에 올라 통치할 때마다 받은 경연교육(經筵教育)에서 경학과 제왕학은 물론 부자윤리와 심지어는 효치논리 까지 형성하는 이른바 ‘수기적차원’의 교육을 받았다. 이를 통해 그는 통치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통치윤리가 반영되는데, 이것이 이른바 ‘치인적 차원’의 애민정책과 개혁정책 등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수기치인적 방법론’을 가지고 통치에 힘쓴 정조는 그래서 ‘내성외왕(內聖外王)으로 표상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정조의 어록인 <일득록>을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책은 정조가 자주 인용했던 ‘일보도원(日暮途遠:해는 저무는데 갈 길은 멀다)’과 같은 의식을 자각하는 일일 것이라고 말한다.

책은 인간 정조의 ‘내성외왕’하고자 하는 모습을 통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동기부여의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관점에서 기술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금주의 베스트 불서 10

순위	도서명	저자	출판사
1	인생수업	법륜	휴
2	스님의 주례사	법륜	휴
3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혜민	쌤앤파크스
4	뛰는 마음 밝은 마음	김재웅	용화
5	이 말 한마디 듣기 위해 이 세상에 왔노라	안영애	운주사
6	우리 모두는 부처다	최태평	평서
7	대승기신론 강해	한자경	불광출판사
8	인간세계의 근본을 밝히다	정목	비움과소통
9	우리말 능엄경	황정원	운주사
10	만화로 보는 법화경과 새로운 해설	방경일	솔바람

www.unjusa.com
운주사 (02)3672-7181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 II

— 광명 만덕 · 자재 만현 —

운주사 불교서적 연속 28주 베스트셀러 1위
교보문고 종교서적 16주 베스트셀러 1위

이 책을 수행인의 양심으로 역사의 제단 위에 올려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속 절대계에 32상 빛의 몸으로 여여히 계신다.”

삼매에서 친견한 부처님의 친설을 담아 윤회와 사후세계에 대한 진실을 밝혔다!!

개정판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I II

추천 도서

영산불교 현지사의 화제의 신간!!

영산불교 금강반야바라밀경
광명만덕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서연 이대성 저, 704쪽, 가격 20,000

금강경오가해와 차원을 달리하는 새로운 관점의 금강경해설서. 오가해를 비롯해 기존의 금강경 해설서들이 주로 선(禪)의 입장에서 해설해왔던 일불승의 입장에서 금강경을 해설한 미증유한 저술. 특히 산스크리트어 원문과 영문을 함께 실어 독자들의 이해를 돕고 있다.

신불교 영산불교를 말한다
전대기 김중섭 이대성 외 저, 339쪽, 가격 15,000

21세기 붓다의 메시지 1, 2를 읽은 불가지성인들이 <붓다의 메시지>가 불자들에게 던지는 의미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천착하고 있는 저자들의 비평서이다. 저자들은 금세기의 불후의 고전이 된 <21세기 붓다의 메시지>를 부연설명하거나 요약정리하여 이 저서가 던지는 불교사적 의미를 천명하고 있다. 한 저자는 <붓다의 메시지>를 읽고 참탄과 경이를 금하지 못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붓다를 이른 대성취자의 순수하고 청정한 범음의 성서이고 일체법을 통달한 최고의 종교철학서이다”

붓다의 가르침에서 바라본 세계종교
자재만현 큰스님 김수, 법장 김중섭 저, 715쪽, 가격 25,000

통상적인 비교종교학의 관점을 넘어서 붓다의 가르침에 입각해 21세기 인류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는 세계적인 종교에 대해서 장단점을 해부한 종교비평서. 뿐만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우주삼라만상은 어떻게 생성되었는가 등 인류의 근본적 의문에 대해 최고의 비밀을 파헤치고, 또한 달라이라마의 <한 원자 속의 우주>에서 제기한 우주기원 5대 의문에 대한 대담을 명쾌하게 제시하고 있다.

추천본사 T. 033)243-1795, 243-1787 불서총판 운주사 T. 02)3672-7181 ※각종 인터넷 서점 및 전국 교보, 영풍, 리브로 대형서점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